

## 문학분야 심의총평

- 일시 : 2013. 1. 18(금), 15:00 ~ 18: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강은교, 구효서, 김재용, 정미경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사업은 총 10건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1차 심의를 통해 2건의 인터뷰 대상공간을 정하였다. 2013년도 사업 계획과 3개년 중기운영전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간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4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존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 2011/2012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50%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을 50%를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문학창작집필공간의 특성 상 문인이 일정기간 기거하며 작품을 창작하는 공간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집필 공간의 독립성일 것이다. 그 밖에 숙식 여건, 편의 공간, 자료 이용실 및 독서 휴식 공간 등의 확보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다. 두 번째 선정 원칙으로는 집필공간 운영의 의도와 목표, 차별화된 문학적 전략 등, 해당 공간이 집필공간으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함께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의 파급효과와 사업계획들의 연속성, 앞으로의 발전 여부 등도 고려되었다.

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원신청한 총 10개 단체 중 최종 5개 집필공간이 지원 선정 되었으며, 이 집필공간은 2년간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을 받게 된다.

문학 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시각예술분야 심의총평

- 일시 : 2013. 1. 18(금), 10:30 ~ 16:3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 심의위원 : 김성원, 김성희, 윤진섭, 이지호

### <시각분야 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사업>

사립미술관과 비영리전시공간에서 총 80건의 신청을 받아 사립미술관 13, 비영리전시공간 20 총 33개의 공간을 선정하였다. 금년도 선정시 2014년도까지 2년 연속 지원을 받는만큼 심의에 좀 더 엄정한 평가가 필요했다. 금년부터 성격이 다른 사립미술관과 비영리전시공간을 구분, 범주를 달리하여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평가시 공간의 전시와 사업들의 수월성을 가장 주목하였으며, 지난 2년간의 실적과 금년계획을 50:50의 비중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살려 상위권을 점하는 공간들에 지원을 집중하였다.

사립미술관의 경우, 우수한 기획전을 통해 새로운 담론생산에 기여함으로써 미술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지난 2년간 꾸준히 충실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공간으로 향후 2년간 계획이 충실한 미술관들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소장품 위주의 소극적 전시를 수행하는 공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대안공간의 경우도 새로운 대안적 담론 생산 실적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안공간들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 1세대 대안공간들의 활동이 지난 몇 년간 다소 부진한 듯 보였지만, 90년대 말 탄생한 이 공간들이 그간 한국현대미술현장에 활력소가 되었고, 신진작가 배출, 실험적 담론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정신과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또 재도약의 기회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서울의 1세대 대안공간 3곳과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공간 1곳을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공간들은 금년도의 사업성과가 부실할 경우, 2년 연속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해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새롭게 탄생한 공간들 가운데 활동 기간이 장소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넘는 곳 중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 소수의 실험적인 공간들을 선정했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무용분야 심의총평

- 일시 : 2013. 01. 10(목) 14:00 ~ 17: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박재희, 최성옥, 장선희, 김예림

###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 무용분야에서는 총 6건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1차 심의를 통해 2건의 인터뷰 대상공간을 정하였다. 2013년도 사업계획과 3개년 중기운영전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존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 2011/2012년도 종합평가결과를 50%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을 50%를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무용 전용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에 장기공연의 어려움 등 무용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의하였으며 가동일 뿐만 아니라 기획의 차별성과 경쟁력 등을 주의 깊게 심의하였다. 또한, 공연물과 참가예술가의 예술적 수준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가동일 수에 비해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와 비용 산출에 문제가 있는 공간은 지원액 책정에 반영하였다.

아직 극장의 운영이나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강할 부분이 많아 보이며 그에 따른 대안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수입 지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극장의 시설(조명 또는 음향)의 보강이 개선 될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용전용 소극장들이 대표자(또는 단체) 중심의 운영에서 점차 벗어나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소극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무용계의 소극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연극분야 심의총평

- 일시 : 2013. 01. 11(금) 14:00 ~ 18: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구태환, 김방옥, 송 전, 이은경

###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지원사업 연극분야에서는 총 35건이 지원 신청하였다. 1차 심의를 통해 기존 지원단체 외에 신규 5건의 인터뷰 대상단체(공간)를 정하였다. 신규단체의 경우 2013년도 사업계획과 3개년 중기운영전략에 대한 심층 인터뷰 이후 2013년 계획서를 세심하게 살펴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다. 기존 지원받은 단체(공연장)의 경우 2011/2012년도 종합평가결과를 50%(2011년 15%, 2012년 35%), 2013년도 사업계획을 50%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의 평가기준은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였다.

이번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우리 연극 발전을 위하여 특정 극장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원공간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인지,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적인 안배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존의 단체 중에서 사업 성격에 맞게 운영한 단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하였다.

다만 일부 지원 단체의 경우, 이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연극분야에 신청한 총 35개 단체 중 최종 10개 단체(공연장)가 선정이 되었으며, 이 단체(공연장)는 2년간 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음악분야 심의총평

- 일시 : 2013. 1. 8(화) 16:00 ~ 20:15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 : 김창재, 이택주, 한방원, 장일범

### < 공연예술 창작발표공간지원 사업 >

‘13년 공모시 기존의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는 사업목적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창작활동 거점 확충을 통해 예술가(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 3년 이상의 중기 공간운영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이를 위해 총 13건의 신청공간 중 서면심사를 통해 기존 (2011/12년)에 2년간 지원을 받은 공간 4개소와 신규로 신청한 공간 중 5개소를 1차로 선정하였다.

특히 기존 지원공간은 지난 2년간의 종합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심층평가결과 50%, ‘13년 이후 중기운영전략 평가 50%를 반영하여 공공재원 지원에 대한 사업성과 피드백을 강화하였다.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신규 5개 공간의 경우는 사전에 공개된 심사기준에 따라 대표자와 실무자 2인이 참석하여 책임심의위원 및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중장기운영전략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통해 ‘13년 이후 중기운영전략 평가결과를 100% 반영하였다.

위 심의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하우스콘서트, 소극장형 오페라, 지역민 참여형 기획 프로그램 등의 유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공간별로 프로그램 경쟁력 및 파급효과, 운영역량을 상호비교한 뒤 4개 공간을 선정했다.

역시 ‘13년도 음악분야의 타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간별로 책임심의위원회의 운영개선 의견 및 조건부 지원사항 등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운영계획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전통분야 심의총평

- 일시 : 2013. 01. 13(일) 16:00 ~ 19: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신혜영, 임준희, 김만석, 김성욱

###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 전통예술분야에서는 총 11건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1차 심의를 통해 2건의 인터뷰 대상공간을 정하였다. 2013년도 사업계획과 3개년 중기 운영전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존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 2011/2012년도 종합평가결과를 50%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을 50%를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사업목적에 맞게 예술가 창작활동에 안정적이며 창작내용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나 공연을 위한 공간은 배제하였다. 공간 특화를 위한 3년이상의 중장기 운영계획과 기획능력을 참고하되,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이 전통예술분야의 창작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개별적으로는 지원한 공간의 운영계획 및 기획한 내용의 구체성과 특화성을 살펴봤으며, 계획이 부실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사업은 배제하였다. 또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실현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공간의 성실하고 짜임새 있는 운이 활발한 창작 공연물의 발표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예술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여 심의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